

## 고창군 고인돌유적지·운곡습지 진출입로 재정비 '산뜻'

## 가로수 등 선사 분위기 연출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를 보다 편하게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재정비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청정한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 진·출입로 620m에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은행나무와 팽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탐방열차 노선에는 양안 가로수를 식재해 터널 형태로 꾸며 방문객들이 선사시대로 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인돌유적지와 고인돌 박물관, 선사체험마을, 운곡습지를 비롯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로 이어지는 길이 자연스럽게 연계돼 고창군을 대표하는 관광병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창고인돌유적은 아산면 죽림리



고창군은 13일 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 진·출입로 620m에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은행나무·팽나무·양안 가로수를 식재해 터널형태로 꾸며 방문객들이 선사시대로 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창군 제공

를 중심으로 탁자식, 바둑판식 등 다양한 형태의 477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어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고창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는 유네

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문화와 환경의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연간 6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